

# 김동연 경제부총리 “美 금리 인상, 국내 충격 제한”

### “우리 경제 체질 단단... 과거 사례 봐도 금리 차 큰 영향 없어 G2 무역 마찰 중·장기화로 인한 국내 영향 면밀히 살피는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25bp(0.25%p) 인상한 데 대해 “우리나라의 건실한 경제 기반이나 과거 몇 차례 유사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라든지 시장에서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의 단단한 체질이나 과거 2차례 정도 금리 역전 현 수준 이상으로 벌어졌던 예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이것이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미·중 무역 마찰이 중·장기화했을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피면서 이에 대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다. 연준은 지난 25~25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3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몇 차례 있을 수 있는 금리 인상이나 신흥국으로의 (영향) 확산, 특히 미·중 무역 마찰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든다”며 “엄중한 국제 상황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중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산업 구조 개편,

국제 협력 다변화 등에 전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관련 해신 그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노력이 서서히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규제 샌드박스 법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혁신성장 관련 법안 입법에 물꼬를 댄다고 평가했다. 창업 증가와 의료기기 부문 등에서의 규제 혁신, 8대 선도 사업 부문에서의 초기 수요 창출, 경제 부처 협동 투자 카리반 시행 등 여러 방면에서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혁신성장 관련 법안들에 대한 하위 법령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당 부처에서 추진해 다양한 혁신 사례가 만들어지고 시장에도 혁신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며 “혁신성장 성과는 1~2년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민간 기업가 정신 확산 및 고용·규제·감독 리스크 완화 ▲플랫폼 경제 등 신성장동력 추진 ▲중·장기적 산업 구조 재편 등을 혁신성장 관련 향후 과제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노력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증가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중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스타 소상공인’ 선발 도민이 직접 뽑는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에서는 도내 대표 스타소상공인 발굴, 육성하는 ‘스타소상공인 공개오디션’을 10월 1일 도청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7회째를 맞이하는 스타소상공인 공개오디션은 38업체가 신청, 치열한 경쟁속에 1차, 2차 평가를 통과한 6업체를 공개오디션을 통하여 전문심사위원과 도민심사위원의 평가를 합산, 최고득점 3업체를 선발한다. 스타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는 총 4,500만원의 경영지원금과 업체당 3,000만원의 특례자금을 지원받는다.

전년도에는 미술교육프랜차이즈인 책먹는 미술관, 기능성 타일 생산업체인 (주)인애, 비강삽입형 마스크를 생산하는 (주)에어랩이 스타소상공인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블루베리 가공업체인 모닝팜, 뿌리채소로 차를 생산하는 물드림, 호환성이 우수한 선풍기 제조업체인 비체름, 산업용드론을 생산하는 우리항공, 금속공예 체험과 교육을 하는 전주한옥마을비만들기습씨당, 물엿과 식용지류를 생산하는 정드림 등 총 6업체가 공개오디션에 진출하여 도민심사위원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홈플러스도 오늘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 동참

홈플러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는 ‘2018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동참해 전국 매장 세일행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홈플러스는 마이홈플러스 신한카드 결제 시 ‘브랜드 돈독 알다리·뫼다리 전품목 2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제과·가공식품 브랜드 기획전’을 통해서도 11대 제과·가공식품 브랜드 대표상품을 특별규일가에 선보이고, 브랜드별 행사상품 2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상품권도 증정한다.



홈플러스는 제과음료, 라면, 휴지 등 가공·생활용품 300여 종을 1000원에 판매하고, 10개 구매 시 1개를 추가 증정하는 ‘천원의 행복(10+1)’ 이벤트도 마련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가전제품 및 완구, 의류 등 비식품 카테고리 할인행사도 준비했다. 먼저 삼성, LG, 위니아 등 ‘유명 가전브랜드 초특가 기획전’이 있다. 해

당 기획전에서는 행사카드(신한·KB국민·삼성카드) 결제 시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진열상품의 경우 할인가에 판매하기도 하며 쿠쿠·쿠첸 밥솥, 필립스 면도기, 난방가전, 피부미용기 등의 할인행사도 마련했다. 완구 전 품목 10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5000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대표상품으로는 헬로카봇, 손오공 공룡메카드 메가 시리즈, 캡처카 시리즈 등이 있다. /뉴시스

## 금감원 “보험사, 암환자 요양병원비 지급하라”

### ‘암 직접치료’ 정의·범위 구체화... 내년 1월부터 약관에 명시해야

앞으로 암환자가 이용한 요양병원 입원비도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암 보험금 지급시 모호했던 ‘암 직접치료’ 범위도 약관에 구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암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가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환자에게 요양병원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암보험 약관에 있는 ‘암의 직접치료 입원보험금’ 중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이 별도로 분리된다. 또한 암환자는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병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한다. 이는 암환자의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사와 암환자 사이 분쟁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 직접치료’ 해석과 관련한 민원 중 요양병원 민원이 92.3%를 차지할 정도다. 기존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이 ‘암 직접치료’가 어떤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암 치료 방식이 다양해지자, ‘암 직접치료’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됐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에게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감원은 ‘암 직접치료’ 범위도 구체화했다. 내년 1월부터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암보험 상품에는 이같은 ‘암 직접치료’ 정의를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보험사별 정의가 다르다면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 격차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동일하게 적용토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 직접치료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 소비자가 암보험 보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농협네트웍스 전북 부지사장 관광발전 국무총리표창 수상

고영훈 (주)농협네트웍스 전북부지사장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구축,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45회 관광의 날을 맞아 27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고 부지사장은 농촌체험관광과 농업인생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개발, 농업인의 실익증대를 도모했으며 해외농업연수, 박람회,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및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농촌체험 상품, 6차산업 농가지원 투어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변화하는 고객의 여행 트렌드에 맞춰 고객만족도 상승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개발, 국내외 여행객들의 여행편의를 도모했으며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접근, 고객 만족도 상승, 꾸준한 피드백을 통해 관광산업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고영훈 부지사장은 정음출신으로 전북대 경영대학원 졸업, 문화·체육·관광을 연계, 새로운 부가가치 및 농가소득 창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소상공인 간편결제 명칭 대국민 공모’

### 정부는 표준 제공법·제도적 규제정비 등 간접지원 추진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빠르면 금년 12월에 시범을 거쳐 19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중학)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결

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간편결제 피칭대회(6.7)를 통해 관련기술을 확인,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율율과 중부투자 해소를 위하여, 관 합동 TF를 통해 4대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기술, 서비스 표준을 마련했다.

또한,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결제서비스로 정부는 법, 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소득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더불어, (가칭)제로페이(Zero-Pay)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을, 금년 12월 시범실시와 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함축적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명칭 공모내역으로는 (공모명) 소상공인 간편결제 대국민 명칭공모, (주

제) 소상공인 간편결제 4원칙과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으로 (공모기간)은 2018.9.27부터 10.22일까지(응모 자격)은 제한 없고 (응모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접수 <http://www.semas.or.kr>로 가능하다. 응모작은 외부 전문평가단에 의한 심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10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500만원), 우수상 2명(각 200만원), 장려상 5명(각 100만원)이고 참가상은 100명(각 3만원) 응모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운누리상품권 등이 지급이 수여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부 관계자는 “금년말부터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의 명칭공모 참여를 통한 정부정책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임태웅 주무관 063-210-6446 에게 문의 하면된다. /김영태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연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